

# 경제위기가 영국 금융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

Mark Stuart (영국 리즈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 머리말

영국 금융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시점은 2007년 9월이었다. 중소 은행인 Northern Rock의 주가가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고 주식시장에서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 당시에는 사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시점에 영국 경제가 신용경색으로 인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Northern Rock의 경영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2008년 2월 국유화되었다. 2008년, 사태의 여파는 투자자의 금융주 구매도로 이어졌고 일파만파 영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갔다. 2008년 9월 수많은 가계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에 정부는 부분적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금융 시스템의 실패는 곧 금융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2009)는 금융 서비스가 영국 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금융 허브로서의 런던이 지닌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특히 영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계 주요 은행 및 보험

사의 경영 부진은 런던의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고 금융권에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현 진행 상황과 고용의 추세적 특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향후 몇 년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고용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적 특징은 특히 금융권에서 두드러질 것이며, 금융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 질적 논쟁, 기술 투자 및 노사관계 등이 새롭게 논의될 것이다. 현재 영국 금융산업노조인 UNITE에서는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의 투명성 및 장기적인 직업안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금융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보다 장기적인 변화에 비추어 고찰할 것이다.

## ■ 영국 금융산업의 변화 : 탈규제에서 금융위기까지

영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반적인 금융 중개 서비스로 분류되며 금융, 보험, 연금 및 기타 서비스를 아우른다. 1987년, 영국 금융산업의 탈규제가 일어났다. 그 전까지 업계의 하위영역 세 분야는 각각 별개의 시장에서 강력한 보호 아래 운영되었다. 하지만 탈규제 이후, 세 영역 간의 경계가 무너졌고 각기 다른 산업 간에도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즉 탈규제로 인해 은행과 건설업 간에 상품(예를 들면, 모기지 상품 등)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했으며, 보험 등의 영역에서는 금융산업의 경험 이 전무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시장은 정교한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등, 복잡다단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업계 내 통합이 늘어나 주요 은행 간 합병 또는 경쟁사 인수가 일어나서 금융권의 대형 기관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규제 이후, 초기에는 전화를 통해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술 프로세스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기술혁신으로 금융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문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영국 금융서비스숙련협회(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 FSSC(2006:10))는 과거에 비해 금융 업계의 “위치 선택의 폭이 늘어났으며, 이는 기술발전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을 뿐

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직종의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규모 콜센터가 영국 중심지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설립·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콜센터 해외이전 압력이 늘고 있다. FSSC(2007:11)는 “시차 및 대규모 영어 사용 인구, 저임금 고택력 인력 풀의 장점을 갖춘 인도가 금융 서비스의 해외이전 기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비핵심적’ 또는 ‘후방’ 프로세스 활동의 이전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IT 설계 등, 고급 기술 부문의 해외이전이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기지의 해외이전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 총체적 차원에서 금융 직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지난 10년간 서비스 기지의 해외이전이 줄기차게 이루어졌고 영국의 금융 서비스, 특히 보험의 경우 타 유럽 경쟁사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해외이전을 단행해 왔다. 2005~2010년 사이 해외 근무인력의 수는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기술혁신 및 해외 콜센터 운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경비절감 및 내부 구조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FSSC, 2007). 이러한 변화는 영국 시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1995~2003년, 은행 및 건설회사의 국내 영업점 5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규제로 금융 서비스의 구조가 변화하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융 상품의 ‘부정 판매’로 인해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판매 상품의 종류 및 판매 방식에 대한 규제가 늘어났고, 2000년 고객 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업계 각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 FSSC (2006:46)에 따르면 “규제변화로 특히 소매 금융 서비스 부문의 절차적 준범이 강조되면서 관련 직종의 전문성 요건과 교육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다만, 재규제가 금융 서비스 부문의 기업 거버넌스 강화 및 위험 기반 금융 상품 및 대출 증가에 따른 감시 확대에 이어지는 않았다.

2008년, 신용경색의 실질적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FSSC의 한계가 노출되고 금융 부문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파산 은행의 숫자가 늘어나자 정부 개입이 이루어졌고 금융 규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2008년 2월, Northern Rock를 국유화한 정부는 그 이후에 여러 은행의 지분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Bradford와 Bingley 는 완전 국유

화되었고(물론, 그 이후로도 일부 자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다), RBS, HBOS, Lloyds TSB 지분의 상당량을 정부가 보유하였다. 정부의 RBS 지분 보유는 이후 70%까지 늘어났으며 이후 합병된 HBOS와 Lloyd TSB에 대한 정부 지분은 43%(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에 달했다. '구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실로 막대했다. 1차 정부 지원은 소유권을 통한 자금 투입이 370억 파운드, 채용자 규모 3,500억 파운드에 달했다. 이후 2009년 초반, 은행 대출 및 신용 흐름 개선을 위해 추가지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RBS에 지원된 금액만도 330억 파운드에 이른다. 은행에서 시작된 감원은 이후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단행되었다.

## ■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의 고용형태 변화

### 경제위기 이전의 고용

경기 둔화 및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영국 금융산업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금융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0만 명으로 은행권 종사자가 62만 명, 보험업 종사자가 18만 명, 기타 금융 서비스 종사자가 29만 명으로, 금융 부문 고용의 다수(약 30%)가 런던 금융 중심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금융 부문 실적은 매우 양호하며 업계 성장 또한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정규직의 평균 수입도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1996년 388.20파운드에서 2006년에는 537.20파운드로 늘어났다. 산업별로 비교하더라도 금융산업의 평균 임금은 최고 수준으로 타 산업 및 서비스 대비 20% 가량 높다. 그러나 영국 금융산업 노조인 UNITE에 따르면 금융 부문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영국 내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여성 고용은 52%로 남성(48%)에 비해 수적으로 높은 편이나 실제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14%에 달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2001~2006년은 금융 부문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눈을 돌렸던 시기로 1997~2002년 동안 2% 성장한 데 비해 이 기간 중 생산성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였다. 다시 말해 금융 종사자에게 현 구

조조정 추세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다. 2001년 이래로 금융산업에서 감원은 꾸준히 단행되었으나, 가장 큰 고강도의 감원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었다. 1990~94년, 탈규제로 금융산업 고용이 10만 명이나 줄었으며 특히 보험업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FSSC(2006:42)에서는 “인력감원은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에서 공격적으로 비용절감을 단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밝혔다. 2002년 5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사라진 87,480개의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보험업으로(유럽구조조정모니터(European Restructuring Monitor : ERM) 조사), 이는 보험 부문의 해외이전 수준(및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FSSC, 2007). 또한 30% 정도는 소매 금융 부문에서 감소하였으며 금융 서비스 전체로 볼 때 일자리의 30%는 영업 기지의 해외이전으로, 60%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줄어들었다(FSSC, 2007).

〈표 1〉 영국 금융 부문의 고용, 해고, 수입(1996-2007)

	고용 총계(000) <sup>1)</sup>	정리해고 (단위 : 1,000명) <sup>2)</sup>	정규직 임금 중간값(단위 : 파운드) <sup>3)</sup>	남성주급	여성주급
1996	1,021	0	388.2	517.0	309.5
1997	1,036	21	408.6	544.7	320.5
1998	1,044	0	422.3	574.7	333.7
1999	1,073	25	435.4	575.8	333.4
2000	1,069	0	467.3	611.4	354.2
2001	1,089	29	482.0	628.3	364.3
2002	1,113	34	479.8	623.3	370.9
2003	1,104	34	513.4	672.9	393.3
2004	1,079	24	494.2	649.5	378.0
2005	1,079	22	514.1	670.0	389.2
2006	1,083	28	537.2	689.9	404.9

주 : 1) Employment, Earning and Productivity Division, ONS, Labour Force Trends (December 2006).

2)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3) Labour Force Survey (2nd quarter).

출처 : SIC 1992 subsection 65-67.

##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

경제위기가 금융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정부 발표 통계치의 장기적인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애초 예상되었던 감원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각기 다른 출처의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주목할 것은 금융 시스템 운영 및 실패의 차원에서 이해가 가장 명료한 시점은 경제위기 초반으로 추상적 개념인 신용경색에 대한 이해가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최근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감원이 실물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크다. 이 중 소매, 재무,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영국은 EU 국가 중 가장 극심한 일자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는 2008년 8월 금융 전반에 걸쳐 단행된 고위직 일자리 감소를 보여준다. 미국 금융 시스템 실패에 직접 관련되어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일례로 골드만 삭스 런던 지사에서만 6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금융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정부 지원이 확대된 Barclays 은행과 RBS에서 감원이 가장 큰 규모로 단행되었다. 2009년 2월 RBS가 공시한 기업 손실은 240억 파운드로 2,300명을 해고하였고 2010년 말까지 2만여 명이 추가로 해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Barclays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겨우 피하였지만 이도 곧 머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Barclays의 경우 지금까지 감원된 직원은 4,600명에 이른다.

향후 수년간의 금융산업 실적에 대한 주요 업체 및 노동단체, 연구기관의 예측은 상이하지만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광범위한 인력 감원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경제인연합(Confederation of Business Industry)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09년 금융산업에서 감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4/4분기 10,000명이었던 감원 규모는 2009년 1/4분기에 12,000~15,000명 가량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금융 부문의 사업적 확신이 지난 18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Lloyds TSB와 합병한 HBOS 금융그룹의 경우, 가장 심각한 경영 부실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감원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그룹의 상당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향후 몇 년간 대규모 구조조정과 감원이

〈표 2〉 2008년 8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영국 금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감소 현황

회사	감원 규모	비고
Royal Bank of Scotland (RBS)	2,300	2009년 2월 RBS가 공시한 손실액은 240억 파운드에 이미 보고된 감원 수는 2300명. 향후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 감원의 10% 가량이 회계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이 같은 감원에 대해 RBS 행장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힘.
Royal Sun Alliance	1,500	13%의 수익 향상에도 불구하고 총 직원 8,800명 중 14%가 감원된 것으로 공식 보고됨.
Legal and General	250-450	전체 직원 수 8,500명
Pearl Group	500	
Friends Provident	280	
Goldfish	900	Barclays 브랜드에 속한 신용카드 회사
Barclays	4,600	영국 본사 기술부서에서 408명, 투자 금융 및 경영 부서에서 2130명이 감원되었으며, 추후 소매, 상업 금융 및 신용카드 영업에서 2100명이 감원될 예정. 영국 내 직원 수는 약 7만 명임.
Santander	1,900	Abby, Alliance 및 Leicester 소유. Bradford 및 Bingley 소속.
Standard Life	195	
HSBC	500	고객 비 응대 부서에서 감원. 총 직원 5만 8,000명.
Credit Suisse	650	영국 근무 직원 10% 감원.
Aon Corporation	700	국제 신용 브로커
Citigroup	1500	주로 런던 크레딧 센터에서 감원 단행.
Credit Suisse	500	
Goldman Sachs	600	런던
UBS	2,000	주로 UBS 런던 지사에서 감원 단행.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살펴보자. <표 3>은 2006~2010년,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의 구체적인 일자리 변화 내용을 보여준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모든 감원 사례를 망라한 유럽구조조정모니터(ERM)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 전체 고용의 변화를 완전히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나 그룹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데이터에 따

〈표 3〉 영국 금융 서비스의 일자리 변화 내용(2006-2010)

	2006		2007		2008		2009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사업 확장	-	3432	-	2,401	-	1,100	-	110
내부 구조조정	3,866	140	4,300	-	10,815	-	29,503	-
해외이전/기지이전	4,414	-	3,630	-	200	-	-	-
파산/폐점	1,700	-	0	-	325	-	-	-
인수/합병	1,050	450	0	-	190	-	-	-
재배치	321	-	593	250	-	-	-	-
기타	0	-	0	0	0	-	-	-
아웃소싱	0	-	0	0	769	-	-	-
전 체	11,351	4022	8,523	2,651	12,299	1,100	29,503	110

출처 : European Restructuring Monitor(ERM).

르면 감원 계획은 특히 2007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2009년 예상 감원 규모는 2008년 대비 2배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축이 영업소의 해외이전보다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인원 재배치가 아닌 감원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금융산업에서 전격 단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영향이 장기적인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 4>는 영국고용및숙련위원회(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의 위탁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은 2001~2006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며, 이는 아마도 금융산업에서 이를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주요 추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불균등하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대폭 늘어나고 정규직 여성의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금융산업 내 직종 변화에 의한 것으로 행정, 사무, 경영지원 부서의 일자리가 주된 감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신 관리직 및 전문직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 변화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 종사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산업노조인 UNITE에서 임금 및 경력개발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문제를 주된 활

〈표 4〉 영국 금융 서비스의 성별·지위별 고용수준

(단위: 천 명)

성별 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총계	정규직 변화	비정규직 변화
2007년					2007-2012	2007-2012
남자	469	17	47	553	20	12
여자	404	154	16	574	-13	30
전체	873	171	63	1107	8	42
2012년						
남자	503	41	48	592		
여자	370	214	20	604		
전체	873	255	68	1196		

출처 : Cambridge Economics/ Institute of Employment Research Estimates.

동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 ■ 노동조합의 대응

1990년대 치열했던 금융산업노조의 투쟁은 2000년 이후 회유적으로 변하였다. 이는 산업 내 다른 노조간의 통합으로 UNITE라는 대규모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 데 일부 기인하기도 하고, 또한 주요 사용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활동이 증가한 탓이기도 하다(Stuart and Martinez Lucio, 2008). 노조의 활동은 조직 변화 과정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요 사용자와 제휴협약 체결에 초점을 맞추었고, 팀 활동, 참여적 의사결정, 직업훈련 및 숙련개발 등의 사안이 주로 다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노조 UNITE에서는 양성평등 문제에도 활동의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힘들게 체결한 노사 파트너십 협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영국 노사관계법에 따르면 이러한 협약은 구속성이 없으며 공식적 효력을 띠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사용자에게 구조조정 및 해고에 관해 노조와 협의할 의무를 부과할 따름이다. UNITE는 EU 지침에 의해 최

소 보장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주요 사용자의 비용 절감 및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UNITE 사무총장은 Barclays의 비공식 해고를 비판하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UNITE에서는 대응의 일환으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사회협약을 구상하였다. UNITE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고용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사회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협약의 주된 내용<sup>1)</sup>은 다음과 같다.

- 1) UNITE를 장래 금융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
- 2) 금융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 3) 연금 등,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 보호 및 개선
- 4) 고위 경영진의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위험 기반 경영을 부추기는 과도한 성과급 제도 종식
- 5) 금융기관의 책임성 증대 방안으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위해 금융 서비스 규제 구조 개혁

## ■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장 알려진 위기의 측면은 금융 시스템의 실패 위험이 광범위하게 초래할 정치적 과제에 관한 것들이다.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해 주요 은행을 인수하고 시스템의 신용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 결과,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던 실패 위험은 금융산업의 고용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이후 금융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재배치가 단행되면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현 경제위기로 인해 각 금융기관이 비용절감에 시선을 돌리면서 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이다. 아직 그 수준과 범위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구제금융 수혜 은행에서의 대규모 감

1) 전체 내용은 <http://www.amicustheunion.org/pdf/Job%201585%20finance%20Social%20contra%20V3.pdf> 참조

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여파는 금융 부문 전반으로, 나아가 경제 전체에 파급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수년간의 가파른 생산성 향상은 그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며, 금융산업의 고용도 저조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노사 파트너십 협약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했던 남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의 해결은 계속해서 노동운동의 장기적 목표가 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 규제 시스템이 어느 수준까지 형성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KLI**

---

## 참고문헌

---

- 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2006), *UK Financial Services: Five Years Forward: Skills Review: UK Wholesale Financial Services*, report prepared by Oxford Economic Forecasting, London: FSSC.
- 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2007), *The View from Europe: Productivity and Change in UK Financial Services*, London: FSSC.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09),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Finance Sector Workers: Issues Paper for discussion at the Global Dialogue Forum*, Geneva: ILO. GDFFCW/ 2009/ 1.
- Stuart, M. and Martinez Lucio, M.(2008), “Employment Relations in the UK Finance Sector between globalization and re-regulation,” in Hyunji Kwon, Sunghoon Kim, Mark Stuart, and Miguel M. Lucio,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in the Financial Service Sector*, Korea Labor Institute, Seoul. 2008, pp.253-282 (in Korean).
- Wilson, R., Homenidou, K. and Gambin, L.(2008), *Working Futures 2007-2017: Evidence Report 2 December 2008*,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Skills.